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음 9월 13일) 제23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타조사 첫 관문 통과

국토부, 투자심사위서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에 제출 도 "항만·공항과 트라이포트 완성 내부개발 촉진 큰 축"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완성되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군산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에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뿐 아니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물류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일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예타대상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예타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에 선정되도록 행정·정치적 등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협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 주요기반시설 개발 및 투자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국토부 역시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한 이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투자심사 안전 상정과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반영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조2953억원을 투자, 군산 새만금신항에서 대야역까지(47.6km, 단선전철) 화물·여객 수송 용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

(29.5km)은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은 군산산단선 구간(18.1km, 비전철)을 전철화해 연결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1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1.11)이 확보돼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항만·공항과 더불어 트라이포트를 완성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는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드립니다'

전북도-정읍시, 등재 기념식·축하공연 개최

전북도와 정읍시가 함께 마련한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오는 11일 무성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지난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무성서

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식전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 시립국악단의 국악공연이 이뤄진다.

세계유산 등재 표지식 제막식에 이어 열리는 기념식은 ▲세계유산

등재 유공자 공로패 수여 ▲무성서원 이치백 원장 기념사 ▲유진섭 시장 환영사 ▲전북도지사 등 주요 인사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김중서·김나니·박주희·최석준·이선수(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歌曲) 보유자) 등의 연예인과 국악인의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민연금 국감... 질문에 답변하는 김성주 이사장
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국민연금공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균형발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 '관심사'

지방자치법 개정안 답보상태 국회 심사는 내달 진행 예정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전주 특례시가 다음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

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룰 목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묶음 받아 온 전북이 두 개 묶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소외된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회 공전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행정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실용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아쉽다' ... 전북, 체전 종합 11위

양궁·씨름 등 부진 속 테니스 등서 예상 외로 선전

전북선수단은 10월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금 46, 은 44, 동 77개를 획득해 종합 11위를 차지하는 아쉬운 대회였다.

지난해 전북도에서 15년만에 개최된 대회에서는 개최지의 이점으로 종합 3위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10위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체전에 대비해 목표달성을 위한 협의체(체육회, 도청, 교육청)를 운영해 전북체육의 기반조성과 우수선수의 집중관리 육성, 불출전 종목 최소화 등 전력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전북도는 대회 초반부터 기록종목과 체급종목의 계속되는 부진으로 마지막 날까지 광주, 전남, 강원과 10위를 놓고 경쟁했다.

경쟁시도와의 순위경쟁에서 기록종목인 육상(트랙), 역도, 양궁, 사격, 승

마, 조정, 물리, 카누와 체급종목에서는 복싱, 씨름, 태권도, 유도 등에서 선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단체종목에서 축구, 야구, 농구, 탁구, 하키의 초반 탈락으로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육상(필드), 테니스, 소포트테니스, 배구, 핸드볼, 레슬링, 체조, 펜싱, 배드민턴, 요트, 근대5종, 스쿼시 종목에서 상위입상과 예상 외로 선전을 펼쳤다.

다관왕은 자전거 황소진(전북체고), 역도 유동주(진안군청) 선수가 3관왕을, 체조 이준호(전북도청), 자전거 박상훈(국도공사), 박서진(전북체고), 수영 한다경(도체육회) 배드민턴 서승재(원광대), 임수민(원광대) 6명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으며, 대회신기록 8개를 수립했다.

또한 육상 마라톤에서는 24년 만에

군산시청 도현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전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대회였다.

한편, 전북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3종목 20명의 도체육회와 우수선수 스프레이너(AT 요원)를 파견했으며, 전북스포츠과학센터에서도 9종목에 6명이 파견돼 선수들의 재활치료, 컨디션 조절, 전술 분석 등 선수단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체전을 대비해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관계자는 "향후 전북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선수 자변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수선수 확보와 실업팀 창단 및 불출전 종목(13개종목 16개팀)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전북체육의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